

<div data-bbox="204 356 566 44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48 465 523 510" data-label="Text"> <p>2011. 11. 28.</p> </div>	<div data-bbox="643 250 764 36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27 250 1283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최형표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 **2011. 11. 29.(화) 16: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양형위원회는 2011. 11. 21.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양형위원회 제 37차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 및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 양형기준 초안』에 관하여 논의

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권고형량을 상향하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할지 여부는 향후 개최되는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의결

②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 양형기준 초안

- 국민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폭력, 교통범죄군에 관하여 신속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공개하기로 하여 양형기준 초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름
- 산업기술유출범죄, 주가조작범죄 등과 같이 경제고도화로 인해 갈수록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대표적 화이트칼라범죄인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에 관해서는 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필요할 경우 양형기준안 확정 전에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임

☞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 **2011. 12. 19.(월)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개토론회 개최

양형위원회는 2011. 11. 29. 16:0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 명 칭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사회자 :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토론자 : 소설가 공지영,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논의 주제
 -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의 선택 문제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변상)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

I. 양형위원회 제37차 전체회의 결과

1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 종전에는 일반적 성범죄를 i)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ii)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iii)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구분하여 양형기준 설정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강화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범위 강화하기로 의결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하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짐
- 다만, 종전 양형기준보다 어느 정도 형량을 올릴지 여부는 향후 개최되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와 ‘일반인 및 전문가를 상대로 한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함

②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 양형기준 초안**

1. 교통, 폭력범죄군

- 사건발생 빈도가 높고,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 폭력범죄군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하여 양형기준 초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름

2.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

- 산업기술유출범죄, 주가조작범죄 등과 같이 현대 경제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고,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에 관해서는 종전 양형실무보다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다만, 아직까지 상당 수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어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와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여 다음 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③ 향후 일정

- 2011. 11. 29.(화) 16:00 :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2011. 12. 19.(월) 16:00 : 위원회 제38차 전체회의
- 2012. 1. :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II. 공개토론회 개최

① 개최 목적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 마련
-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② 토론회 개요

- 명칭 :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시 : 2011. 11. 29.(화) 16: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③ 토론회 참석자 프로필

● 사회자 : 박상훈 변호사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 現)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 토론자

① 공지영 소설가

-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 『창작과 비평』에 ‘동트는 새벽’ 발표로 등단
- ▶ 소설 『도가니』 (창작과 비평사) 등
- ▶ 現) 시민방송(RTV) 이사

② 박영식 변호사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 서울가정법원 판사
- ▶ 現) 박영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③ 이윤상 소장

-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졸업(석사)
- ▶ 現)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
- ▶ 現)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위원회 위원
- ▶ 現)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장

④ 이주원 교수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토론회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6:00 - 16:1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6:10 - 17:10	주제토론	토론자 전원
17:10 - 17:40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토론자 답변
17:40 - 17:50	마무리	토론자 정리 발언

5 토론회 논의 주제

-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의 선택 문제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변상)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 끝.